

# ‘치유의 고장’으로... ‘완도 방문의 해’ 천만 관광시대 연다



지난 21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신우철(오른쪽 두번째) 군수와 박지원(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이 관광 객 유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청산도 걷기 등 축제·해양치유 관광 중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개별·단체 관광객에 인센티브...특별 여행 주간 등 마케팅 활발

완도군이 해양치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21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선포식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5년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 수 있는 완도 관광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치유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 등 완도만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해양치유 관광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특별 여행 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완도군에서는 오는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 세계 300여 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돼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군수는 완도의 자연환경, 전복과 해조류 등 세계가 인정하는 농수산물 자원, 국내 최초 해양치유산업 선도, 국내 유일 '치유의 섬' 등 완도만의 특별한 관광 전략을 설명했다.  
완도 방문의 해 홍보 대사로 배우 위하준, 가수 안성훈, 오세득 등 요리사와 유튜브 리광 등 6명이 위촉됐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여행작가협회 등 관련 기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할 군외면 불목마을 전경.

## 귀농·귀촌, 농촌에서 살아보고 결정

### 완도군, 참가자 10가구 모집

완도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제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가하는 도시민은 2개월간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군외면 불목마을과 신지면 울모래마을 등 2곳에서 진행되며, 총 10가구(10명)를 참가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농촌 이해, 지역 교류·탐색, 영농

실습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사업 참가를 원하는 전남 외 타지역 거주 도시민은 3월 5일까지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 절임배추 지난해 1289억 매출 '역대 최고'

## 700여 농가 319만 박스 출하 전년보다 판매량 29% 증가

땅끝 해남의 절임배추가 2024년 역대 최고인 128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역 절임배추 생산 743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남절임배추는 지난해 319만 2000박스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이같은 판매량은 전년 248만 박스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평균단가는 20kg 한박스에 4만6800원으로, 지난해 3만7400원에서 9% 상승하며 해남 절임배추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배추정식기 집중호우로 배추 생육 부진과 김장 배추값 폭등이 우려되자 11월 중순 이후 김장하기 전 국민 캠페인을 통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해남 배추가 충분히 자란 시기 김장을 함으로써 적절한 가격에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하자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올해 김장 가격의 안정은 물론 해남 배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 군민과 함께 명현관 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군의회까지 배추 홍보맨을 자처하며 해남 배추 홍보에 나선 결과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남 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 배추에



절임배추 현장점검하는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지난해 4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했다.  
해남 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kg 이상 결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전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

달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추 속이 짙차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 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매출 성장은 농가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 방치된 예식장 '생활문화센터' 대변신

###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생활문화센터' 개관...군민 문화 활동 지원

진도군이 방치된 예식장 건물을 활용해 지은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진도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지난 20일 개최했다.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진도생활문화센터는 연면적 2244㎡, 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1층에는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 지상 1층은 교육실과 관리실, 마추침 공간, 사무실로 꾸몄다.  
또 지상 2층은 기획전시실 1관과 프로그램실, 지상 3층은 전문전시실, 기획전시실 2관으로 조성했다.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진도생활문화센터'는

과거 예식장으로 운영되던 문을 닫은 후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을 활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진도군은 해당 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접하고 배우며 누릴 수 있는 다목적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전남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전환사업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던 공간이 군민들을 위한 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HD현대삼호, 안전활동하면 현금 포인트

### 인센티브 시스템 '삼호 페이' 도입...무재해 생활화 기대



HD현대삼호가 안전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삼호페이'를 도입한다. 임직원들은 안전활동 참여시 실시간으로 현금성 포인트를 받는다.  
HD현대삼호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한정동 부사장을 비롯해 카카오페이가 백승준 사업총괄 부사장,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업의회 김병수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호페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삼호페이는 HD현대삼호 및 사내협력사업 임직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TBM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작업지시 ▲현장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정전쿠폰 등 안전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시간으로 안전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삼호페이를 얻은 안전포인트는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일대일 전환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를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삼호페이가 기존의 무재해 등 결과에 따른 임직원의 안전활동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 노후 등대 개량

### 목포해수청, 6억원 투입 8월 완공

목포해양수산청은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안마항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노후화된 등대 2기에 대한 개량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직경 2.2m, 높이 9.8m 규모로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마항방파제등대는 지난 1994년 12월 신설돼 약 31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됐다. 또 2020년도 항로표지 시설물 정비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목포해수청은 사업이 완료되면 안마항을 입·출항하는 어선과 여객선(계마항-안마항) 등 인근 통항 선박의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씨월드고속웨리 이혁영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씨월드고속웨리(주) 이혁영 회장이 지난 21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사진>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성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대학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 예·결산, 대학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등 대학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여했다. 현재까지 대학에 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이 회장의 경영 리더십과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목포해양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산학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혁영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후학들의 성장과 학문적 성취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학교의 명예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한편 지난 1998년 씨월드고속웨리(주)를 설립한 이혁영 회장은 제주 항로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선인 린제누비아 I호, 린제누비아 II호, 초쾌속선 산타모니카호, RO-RO 화물선 씨월드마린2호를 취항시키면서 관광과 연안해운산업 분야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